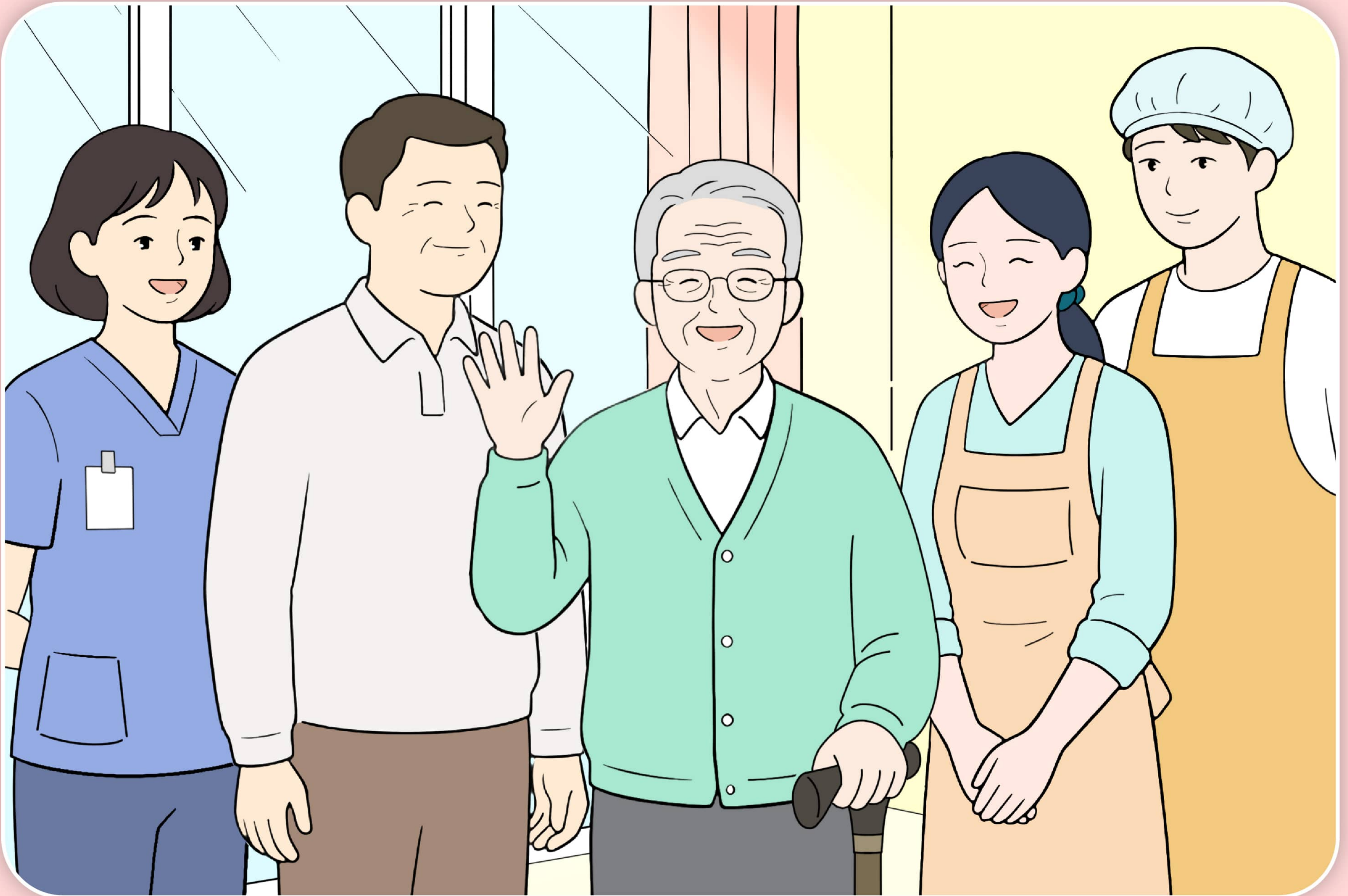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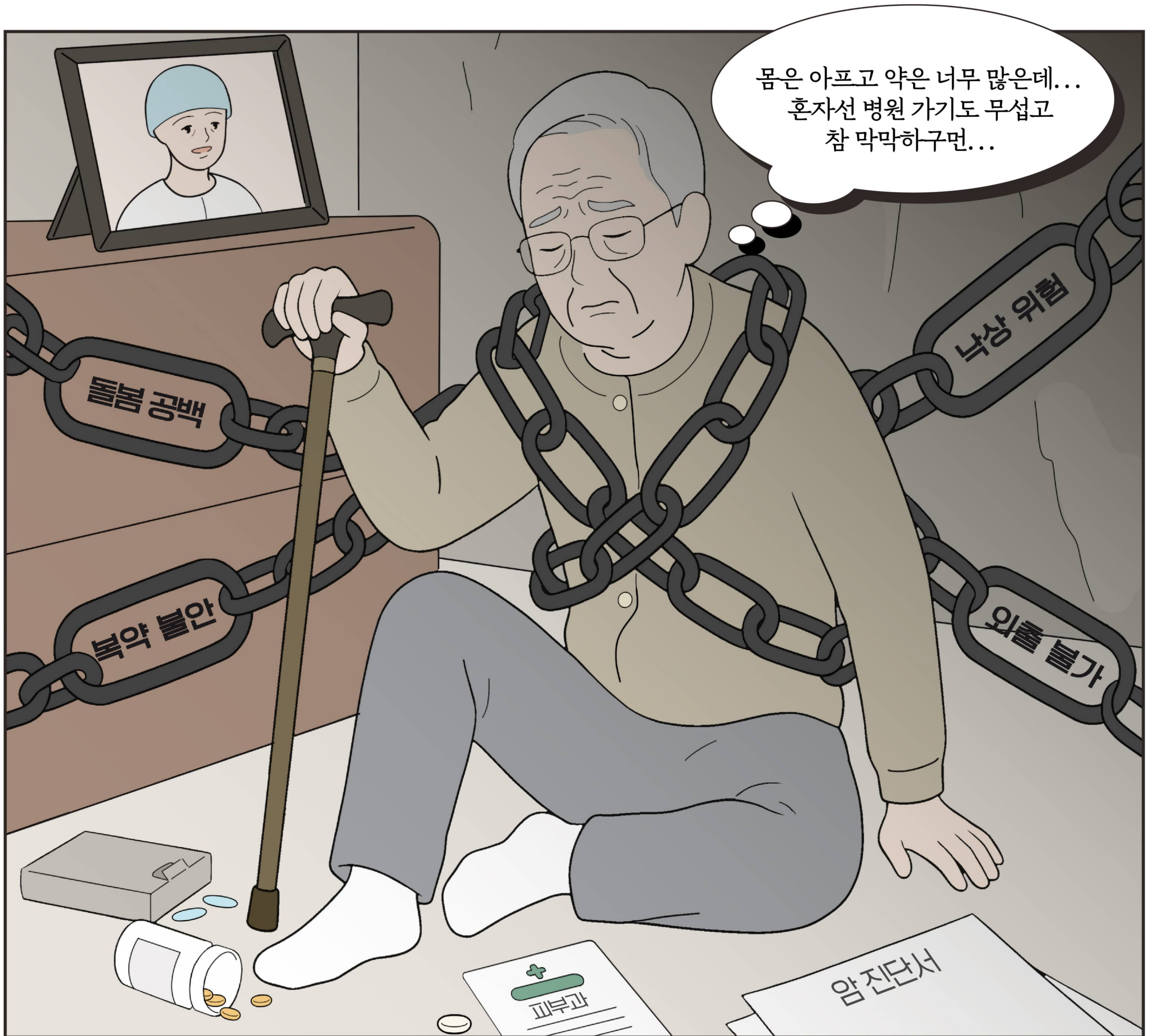


살던 곳에서 맞이한 100일의 봄

100일 간의 변화, 살던 곳에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



※ 본 웹툰은 실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.



방광암과 복합 만성질환, 청각 장애를 가지고
홀로 사는 80대 김씨 어르신. 가장 의지하던 큰딸마저
항암 치료로 어르신 곁을 떠나며 홀로 '**복합 위기**'에 직면했습니다.



어르신이 스스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.
지자체가 직접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의 집을 발굴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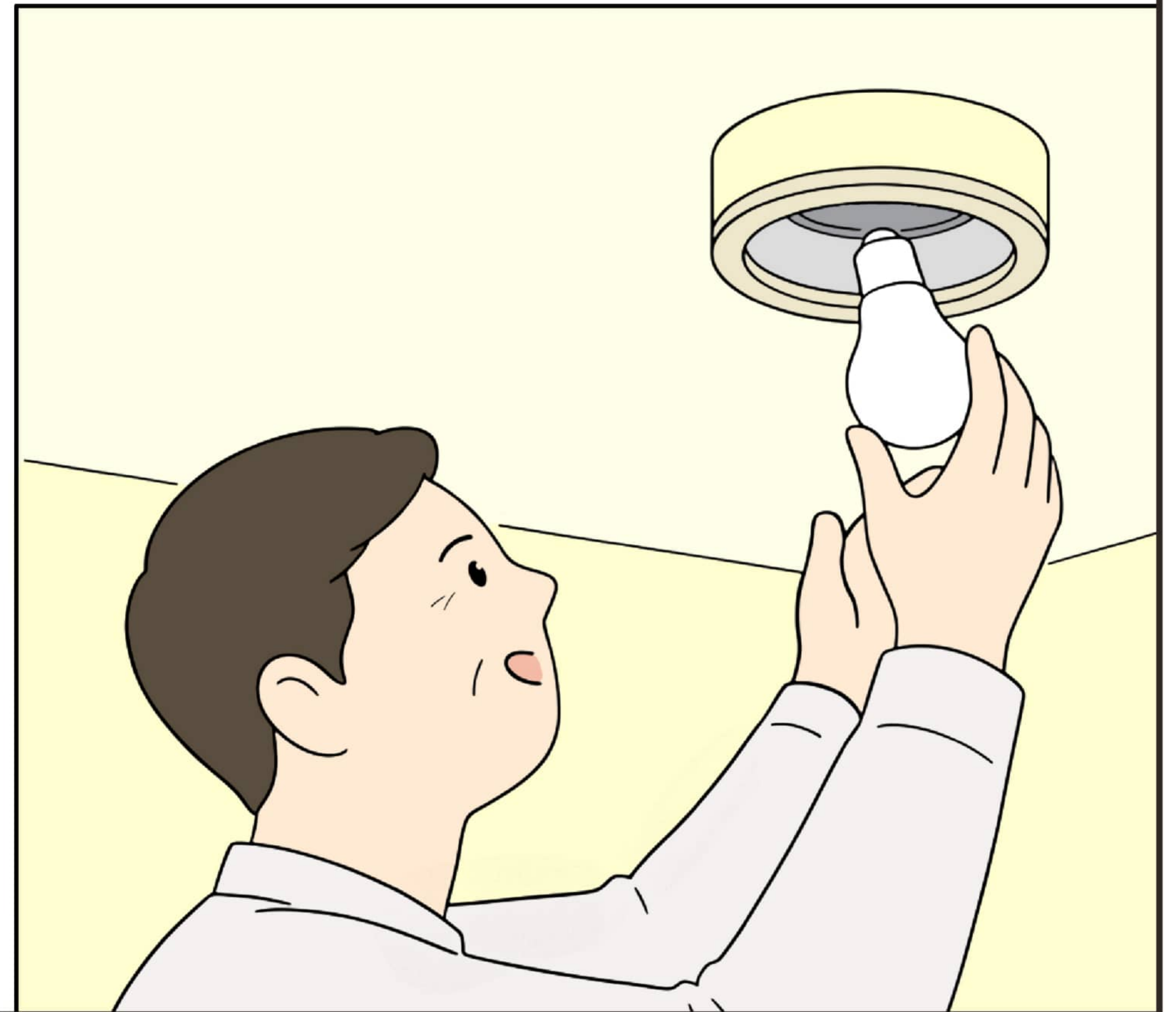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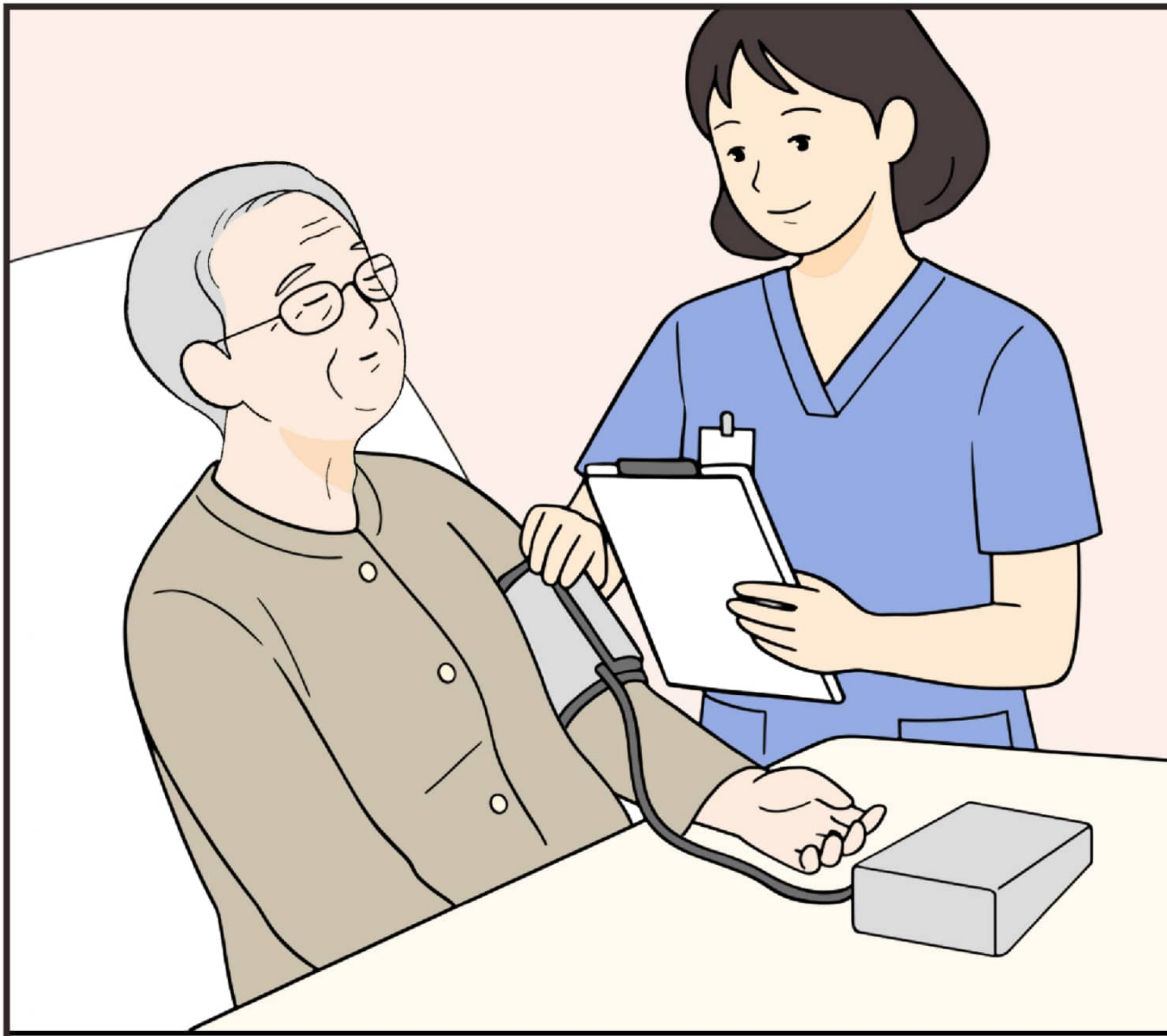


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**어르신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·요양·돌봄**
전 영역에 걸쳐 어르신의 진짜 도움을 파악하는
 욕구·필요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
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



지자체·건보공단·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
촘촘한 '**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**'을 수립했습니다.



아픈 몸을 밀착 케어하는
건강관리, 식사와 이동을 돕는 일상생활, 안심하고 머무는 주거안전까지!
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어르신의 하루하루를 촘촘하게 채워드립니다.



벼랑 끝 위기에서 활기찬 웃음을 되찾을 때까지!
가장 익숙하고 정든 그곳에서, 당신이 안녕히 머무를 수 있도록
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.